

블랙의 미학...동서양 경계를 너머 시대를 잇다

전남도립미술관 국제전 'BLACK&BLACK'...오는 12월14일까지

수묵비엔날레 연계...1950년대 서구 블랙회화 현대미술 시각 조망
'여백과 비움'·'새로운 추상 언어'... '다름과 같음' 예술적 사유와 교감

검정은 단순한 색이 아니다. 어둠과 빛, 비움과 충만이 공존하는 세계의 언어이자 동서양 예술이 교차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검정의 미학을 주제로, 동아시아 수묵 남종화와 1950년대 서구 블랙 회화를 현대미술의 시각에서 교차 조망하는 전시가 마련됐다.

오는 12월14일까지 전남도립미술관이 선보이는 국제전시 'BLACK&BLACK'이다.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4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전시에는 국내의 작가 20명이 참여해 회화와 도자, 영상 설치 등 7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도립미술관은 이번 전시를 위해 프랑스의 파리시립 세르누치 아시아미술관과 국립현대미술센터, 아르통 재단 등 유수 기관으로부터 작품을 대여했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리움미술관을 비롯한 국내 주요 기관의 협력으로 전시의 스펙트럼을 한층 넓혔다.

전시는 '동서양 블랙의 미학적 차이와 조응'이라는 주제 아래, 같은 검정을 다루더라도 문화적 배경과 철학적 인식의 차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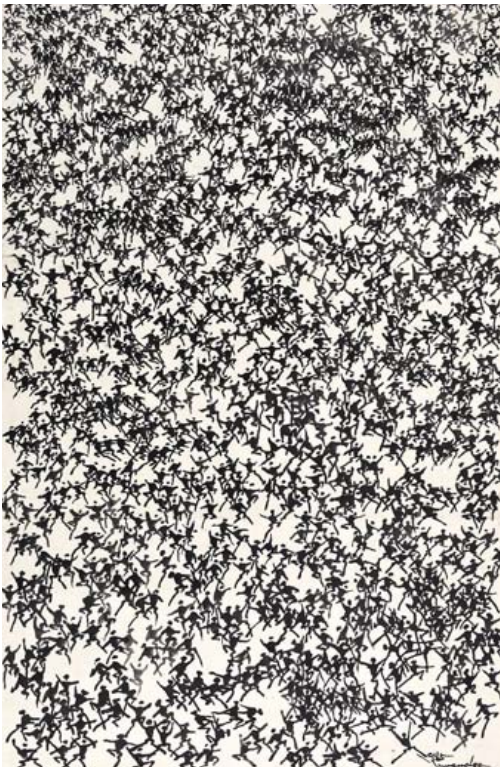
따라 다른 미적 의미가 형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양 수묵은 여백과 비움을 통해 기(氣)의 흐름과 생명력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 서구 현대미술은 블랙의 물질성과 평면성을 활용해 새로운 추상 언어를 탐구했다. 결국 두 세계에서 블랙은 결핍이 아니라 생성의 원천이며, 우주와 생명의 질서를 담은 매개로 기능해왔다.

1950년대 파리 화단은 전후 국제미술의 중심지로, 다양한 문화와 사조가 교차하던 공간이었다.

중국 출신 자오우키(Zao Wou-Ki)는 서예적 필치와 산수화적 공간 개념을 서구적 색채와 결합해 서정적 추상의 세계를 열었고, 그의 작업은 아시아 작가들도 세계 미술사에서 주체적 위치를 점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같은 시기 피에르 솔라주(Pierre Soulages), 한스 아르통(Hans Hartung), 장 드고텍스(Jean Degottex) 등 서구 작가들은 격렬한 제스처와 물질성을 통해 블랙의 조형적 가능성을 확장했다.



이응노작 '군상'

이 흐름 속에서 한국 작가들의 등장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만들었다.

이응노는 파리에서 활동하며 서예적 전통을 해체하고 현대 추상 회화로 확장했으며, 이우환은 '관계항(Relatum)' 개념을 통해 서구 미니멀리즘과 개념미술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강소 역시 먹과 붓의 흔적을 통해 동양적 공간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이우환작 'Dialogue'

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전시는 이처럼 동서양 거장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보여주며, 예술의 경계를 넘어선 블랙의 언어를 탐구한다. 서구 작가로는 솔라주, 아르통, 드고텍스, 로버트 마더웰, 자오우키, 한국 작가로는 이우환, 이응노, 이강소가 참여한다.

또한 조선시대 공예 윤두서에서 시작해 허련, 허백련, 허견으로 이어진 남도 수묵의 전통이 함께 조명된다. 현대 수묵의 맥을 잇는 김호득, 정광희, 최중섭, 송필용, 박종갑, 설박, 황인기, 박



장 드고텍스작 '무제'

정선 등 남도 기반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선보인다. 이들은 남종화의 정신성을 바탕으로 수묵을 동시대적 언어로 확장하며,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이 공존하는 미학적 지평을 펼친다.

전시는 전후 파리 화단을 중심으로 이뤄진 문화적 교류와 예술적 상호작용을 재조명하면서도, 한국과 아시아 작가들이 서구 미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탐구한다.

/최명진 기자

빛의 여정, 여성·역사·예술로 피어나다

'2025광주민족예술제', 25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 일원에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축제가 열린다.

(사)광주민예총은 오는 25일 '2025 광주민족예술제 빛의 여정: 여성, 역사, 예술로 피어나다'를 개최한다.

전라도 여성의 삶과 예술을 주제로 한 이번 축제에는 10개 예술단체와 4개 위원회, 200여 명의 예술인이 참여한다.

체험부스와 버스킹, 전시, 총체극 공연을 통해 역사적 의미를 예술로 재해석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체험부스에서는 광주전남작가회의의 '사투리 시낭송', 광주민미협 '진판사 태극기 액션 페인팅 & 인물드로잉', 목요사진의 '사진으로 만나는 응녀에서 신여성까지', 연희단 아리의 '버나 & 상모돌리기', '네컷사진'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연희단 아리가 선보이는 사물놀이를 비롯해 정랑의 댄스 공연, 푸른솔시민합창단과 광주전남작가회의의 협업 무대, 아리아리국악단의 '우리 악기로 듣는 가요' 등 버스킹 공연



지난해 광주민족예술제 공연 모습

도 이어진다.

종합예술전시 '여성, 역사, 예술로 피어나다'는 해방 이후 변화하는 사회 속 여성의 삶을 주제로 시화, 사진, 회화 등 6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주제극 '빛의 여정: 여성, 역사, 예술로 피어나다'는 오후 5시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최명진 기자

보이지 않는 감정의 조각을 마주하다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예술센터, 청년아트그룹 '루프' 단체전

감정을 쉽게 이름 붙이고 단정짓는 시대, 그 틈새에 남은 미묘한 감정들을 포착한 전시가 열린다.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예술센터가 청년아트그룹 '루프'(LOOP) 단체전 '단정 너머 단서들'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전남대 미술학과 조소 전공 출신 작가들이 구성한 루프의 기획으로, 노하은·공윤정이 전시를 이끌고 공윤정·권동우·임은혜가 참여 작가로 나섰다.

전시는 오늘날 감정이 사회 구조 속에서 단순히 분류·정리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언어로 규정되지 않는 감정의 잔류를 조형 언어로 복원하려는 시도다.

기획자들은 "예술이 감정을 치유하

거나 해소하기보다, 그 자체로 '존재하게 두는' 열린 장을 만들고자 했다"고 밝혔다.

작가들은 불안·상실·트라우마 등 부정적 감정의 충위를 탐색하며, 그 속에 잠재된 심리적 에너지를 시각화했다. 감정의 결론 대신 감각의 조각들이 흩어진 궤적을 통해 관객은 각자의 내면을 마주하고 응답하도록 구성됐다.

공윤정은 감정의 흔적을 공간 설치로 풀어낸 신작을 선보이며, 권동우는 콤플렉스와 페르소나를 주제로 '예쁜 지않은' 인형 형상 작업을 전제한다.

임은혜는 일상에서 비롯된 감정과 기억을 소재 연구를 통해 조형화하며, 개인적 경험을 위로의 장면으로 변환한다.



임은혜작 '섬뜩한 휴식'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예술센터는 올해부터 지역 청년예술인에게 전시공간을 개방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는 지난 9월 이예진 개인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다.

/최명진 기자

그린

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017 건강기능식품 시장 유통총액 1위

2018 건강기능식품 시장 유통총액 1위

2019 건강기능식품 시장 유통총액 1위

2020 건강기능식품 시장 유통총액 1위

2021 건강기능식품 시장 유통총액 1위

2022 건강기능식품 시장 유통총액 1위

2023 건강기능식품 시장 유통총액 1위

2024 건강기능식품 시장 유통총액 1위

2025 건강기능식품 시장 유통총액 1위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